

News

‘연봉 이내’였던 은행 신용대출, 7월부터 풀린다

조선비즈

주요 시중은행들,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다음달 효력 잃을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 점검 등 대응 준비… 6월말 이후 추가 연장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금융당국, “현행 연봉 이내 한도 규제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각에서는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대출 문턱 낮추자… 5월 은행권 가계대출 4000억 증가

머니S

5월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1,060조 6,000억원으로 전월비 4,000억원 증가… 지난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 금리 내리고 한도 늘린 효과
가계대출은 주담대 잔액 787조 6,000억원으로 전월비 8,000억원 증가… 신용대출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71조 6,000억원으로 전월비 5,000억원 감소

금리상승 즐기자…은행 단기예금에 4.5조 더 몰렸다

머니투데이

주요 은행, 지난 5월 기준 만기 6개월 이하 단기예금 신규 금액은 14조 3,554억원으로 집계… 작년 7월과 비교해 4조 5,408억원 증가
국내 은행 전체를 봐도 만기 짧은 예금 상품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 중… 소비자들이 금리 상승에 대한 이자 이익 증대 효과 최대한 많이 보기 위한 전략

DSR서 빠진 전세대출, 증가 심화… ‘2030세대’ 비중 절반 넘어

이코노미스트

올해 4월 말 기준 국내 17개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자 수는 133만 5,090명, 대출 총액은 167조 510억원에 달해… 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4개월 만에 167조원 대로 증가
특히 전세자금 대출자 수와 대출 규모는 20~30대가 과반 차지… 2030세대의 이자 부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대출규제 틈새 엿본 대형 생보사…삼성생명 1분기 담보대출 증가 주도

CEO스코어데일리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 부동산담보대출 잔액 40조 1,892억원으로 작년말대비 2,733억원 증가… 삼성생명이 총 26조 2,686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
작년말 부동산담보대출이 줄고 약관대출이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 연말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관리에 맞춰 대출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에 나선 영향

교보생명, 신종자본증권 5억 달러 발행

ZDnet Korea

교보생명, 우량 신용등급 바탕으로 5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내년 시행 예정인 IFRS 1, K-ICS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함
RBC비율은 올 3월말 기준 205.1%로 안정적이나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만기 30년이지만 5년 경과후 콜옵션 가능

유동성 장세 끝났다…증권사, 리스크·고객수익률 관리에 집중

연합뉴스

국내 10대 증권사, 시장 위험과 고객 수익률 관리를 위한 보수적인 비상계획 수립해 시행… 조직 내 시너지 높이고 인건비 등 비용 최소화 등 긴축 전략을 통해 대응 태세
기존 시스템 정교화 및 내부 커뮤니케이션 다듬기… 키움증권은 비용구조 효율화 작업 중… 일부는 시장 상황 관계없이 꾸준히 수익낼 수 있는 영역에 집중

파티 끝난 주식시장…투자자 주식·CP 빼 채권 담았다

굿모닝경제

5월말 투자자들, 전체 투자자산 중 주식 97조 8,834억원, 채권 91조 1,959억원, CP 37조 9,968억원 투자… 작년말 대비 주식과 CP 부문에서 각각 2.44%p, 1.56%p 감소
채권 저가 매수해 매매차익 기대 가능하고 새로 발행되는 채권은 발행 금리가 높아 우수한 이자수익 기대할 수 있기 때문… 3분기 이전까지 채권비중 확대에 나설 것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